
		<b>보 도 자 료</b>		<div>2025년</div> <div>수도권매립지 종료</div> <div> 인천광역시</div>	
		배포일자	2021년 1월 24일(일) 총 2매		
담당 부서	인천보건 환경연구원	담당자	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• 담당자		최은정 ☎440-8514 정승혜 ☎440-851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### - 보건환경연구원, 인천지역 유통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해 인천지역 유통 수산물 총 417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 대상은 설·추석 성수 및 계절 수산물, 김장철 수산물 등으로 방사능, 중금속, 동물용의약품, 패류독소, 타르색소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.
- 그 중 416건은 기준에 적합하였고, 1건이 동물용의약품인 트리메토프림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관련기관에 긴급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다.
- 남촌농수산물검사소는 인천종합어시장과 화재 후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, 마트 등 인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판매 수산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- 또한, 향후 안전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에 대비해서 분석장비 구축 및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.
-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수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인천의 특성상 오프라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검사도 꼼꼼히 챙겨 수산물 안전관리에 적극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<기기분석 사진>

